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17. 염화시중의 미소

부자가 함께 모일 큰 자리를 벌이고
拋他祖父大家筵
꽃가지 든 것을 바른 전법으로 삼았네
拈出花枝作正傳
피해 입은 후손들이 몹시도 가난해서
帶累兒孫貧到骨
할미의 옷 빌려 입고 할미에게 세배하네
借婆裙去拜婆年
- 열재거사 <선문염송> 5칙 '염화미소'

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염화시중의 미소가,
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수되어지면서
만들어졌다 해도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삼척전심 중 '염화시중 미소'만이 출처 불명
선화의 진위여부 떠나 禪의 핵심 표현 '의의'

선의 근원을 말할 때 자연 석가모니께서
마음을 전한 세 곳의 이야기, 곧 다자
탑전 반분좌와 염화시중의 미소, 사라쌍
수하 괘시쌍부를 일컫는다.
인류의 정신 유산 중 가장 미묘한 선은
한 송이의 연꽃과 한 번의 미소에서 탄생
되었다. 삼척전심 중 오직 염화시중 미소
만이 출처가 분명하지 못하다. 얼마나 낭
만이 있고 멋스럽고 아름다운가는 이야
기를 접해 본 사람이라면 바로 직감하게 된
다. 선의 멋은 선화가 정말이나 거짓이나

선의 정곡을 찌른 이야기다.
위의 계승 1행에서 '부자가 함께 모일
대면회를 배운다'는 인위적이 아니라서
마침이 없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작
이 없어서 석가모니와 가섭이 배운 이 연
회는 인류를 위한 세계연연(世世緣緣) 이
어지는 연회다. 이 연회장은 천하에 있는
는 자들이 뛰어 노는 곳이다. 현금의 정리
된 단어로는 공(空), 도(道), 진리, 필드
(field), 화엄법계, 양자물리학의 통일장(統
一場)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根底)에 들어왔다는 의미다. 4행은 더 이
상 가난해질 수 없다. 바로 가난 자체가
된 선시적 수사법상 사물에 선시의 무한
실상을 지칭한 것이니, 곧 선가에서 계합
이니, 노호불허회(老胡不許會) 등의 선어
로 말하는 부분이다. '할미의 옷 빌려 입
고 할미에게 세배하네(借婆裙去拜婆年)'
라는 4행이아말로 언어도단(言語道斷)하
고 이언절려(離言絕慮)의 소식이다.
<금강경>제17 '구경무아분' 경문에 대
하여 아보 도천(始父道川)은 계승으로 두

을 밝혔는데, 위의 계승 4행과 같이 읽힌
다. '아보송'을 분석하여 보면 자연 이 계
송의 마지막 행이 드러난다.

소라고 부르면 곧 소요, 말이라 부르면 바
로 말이다 喚牛即牛 呼馬即馬
노파의 직삼을 빌려서 노파의 문 앞에 걸
어둔다 借婆衫子拜婆門
예의 차림은 이것으로 넘친다
禮數周旋已十分
대 그림자 닳도록 빗질해도 먼지 하나일
지 않는다. 竹影掃階塵不動
달은 연못을 훑어도 수면에 흔적 하나 없다
月穿潭底水無痕

그렇다. 아무리 소를 부르고 말을 부르고
모든 이름을 부른다 해도 알맞지 않은 뿐, 설
사 한 물건이라 해도 곧 맞지 않다. 또 마음
이다 진리다 공이다 해도, 마음이 아니고 진
리가 아니고 공이 아님이 분명하니 그냥 일
물(一物)이라 해도 일물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것은 진리를 아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차원이지만 진리 당처와 만난다 할 때는
이미 주객이 분리된 이해 차원으로 떨어
진다. 그래서 위의 계승 4행과 같이
'피해 입은 후손들이 몹시도 가난해서/할
미의 옷 빌려 입고 할미에게 세배하네(帶
累兒孫貧到骨 借婆裙去拜婆年)'로 노래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수사법이아말로 선
시의 모순적 어법이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선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⑩ 옥수수수염 늙은 호박 꿀 버무리



'호박 같은 얼굴'이라는 말은 여성이
라면 누구나 듣기 좋아 하지 않을 것입
니다. 그러나 '호박이 넣을래 들어온다'
는 속담에서 보듯, 호박은 겉으로는 촌
스러워 보이지만 영양학적으로 풍부하
고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호박은 다
른 채소에 비해 기후조건에 대한 적응
이 뛰어난 농작물인 만큼, 호박이 때
우 드물다고 합니다.

(cryptoxanthin), 비타민 C, 판토텐산, 이
노시톨(inositol), 비타민 K, 레몬산 등의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안덕균씨가 쓴 <한국본초도감>에서
는 "옥수수수염은 생약명으로 옥미수
(玉米鬚)라고 한다. 이수소종, 통림, 청
간담습열의 효능이 있어 신우신염으로
몸이 부었을 때 물을 넣고 달여서 복용
한다. 대변을 볼 때 등통을 잡을 수 없을
때, 소변의 양이 적으면서 잘 나오지 않

는 증상에도
효과를 나타
낸다. 고혈압
에서 혈압 강
하 작용을 나
타낸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옥수수수염만을 달이
거나 달걀리 또는 질경이 씨와 섞어 달
여서 콩팥염, 부기, 방광염에 먹거나 옥
수수수염 가루를 식초로 반죽하여 아물
지 않는 상처에 붙여 썼다고 합니다. 특
히 신장 결석이나 방광 결석에는 옥수
수수염 30그램을 삶아 자주 마시면 효
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매
일 옥수수수염 40그램을 삶아 물처럼
수시로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 밖에
도 각혈, 토혈, 녹농증, 원발성 고혈압,
낙담염 등에도 옥수수수염을 달인 물을
마시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영양 풍부 호박은 식·약용으로 널리 애용
옥수수수염은 붓기 완화·혈압강화에 효과

호박은 예로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널
리 이용되어
왔는데 애초
박은 주로
나물이나
전, 찌개 등
의 음식으로
먹고 늙은 호박은 떡, 옛, 범
벅, 죽으로 이용했습니다. 또한 호박잎
은 찌서 찜으로 먹기도 하지요. 호박은
전분질이 많아 주식 대신 먹어도 좋으
며 칼로리가 고구마의 절반 정도여서
다이어트식으로도 알맞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늙은 호박에
옥수수수염을 넣은 꿀 버무리입니다.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옥수수수염 속
에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옥
수수수염의 주성분은 지방유 2.5% 정
유 0.12% 교질 3.8% 수지 2.7% 배당체
1.15% 사포닌 3.18% 알칼로이드
0.05% 등입니다. 이 밖에도 크립토탄틴



옥수수수염 늙은 호박 꿀 버무리

재료: 옥수수수염, 늙은 호박, 인삼, 구기자, 꿀

- 만드는 법
① 구기자는 따뜻한 물에 불려서 속살이 골물을 달게 타서 식힌다.
② 늙은 호박은 뜨거운 물에 데쳐낸 다음 식혀둔다.
③ 인삼은 채 썰어서 둔다.
④ 옥수수수염은 찬물에 담가서 싱싱하게 살린 다음 4-5cm 길이로 썰어둔다.
⑤ 준비된 재료를 골고루 섞어 버무리 그릇에 담아낸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삼베옷을 입은 자화상



존재의 내면을 향한 깊은 응시

조용미는 1962년 경북 고령에서 태
어나 1990년 <한길문학>으로 등단하
였다. <삼베옷을 입은 자화상>은 그의
세 번째 시집이다. 그의 시집에서 불교
어휘를 빈번하게 만날 수 있다. 많은 절
을 순례한 흔적이 시에 보인다.
시 '적막이라는 이름의 절'에서는
'적막이라는 이름의 절에 닿으려면 오
랜 기다림과 설림이 필요' 하며, 이러한
적막을 통과하고 나아 '꽃과 열매를 함
께 볼 수 있다'고 한다. '불멸'에서 화
자는 사나사 석탑 옆에 쓰러져 있는 반
송을 보고 '반송은 제 광기를 다스리지
못했거나 태풍이 제 광기를 절 마당의
소나무에게 물어 보았다'고 한다.
'바람은 어디서 생겨나는가'에서는
개태사에서 만난 '뿌리째 뽑혀 쓰러
진' 향나무를 보며 바람의 근원을 생각
한다. '두웅 습지'에서 화자는 두웅 습

지를 화엄세계, 연화장 세계라고 한다.
화자는 습지에서 오랫동안 웅얼거리
며 서 있다가 '범패와 범음이 울려 퍼
지는 소리'를 듣는다. 인취사에서 만난
파초의 꽃을 등으로 비유한 '파초등'
에서는 '파초가 절집 마당에 있는 이유
를/ 이제야 알겠다/ 저렇게 한 송이의
등을 전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일'이라
며 사람들의 무지를 두들겨 깨운다. 시
인은 이렇게 절을 해매다가 어느 별방
에 무진등을 만난다.
별은 무진등이다
다함이 없는 등불,
꺼지지 않는 무진등
내 안에 다함이 없는 등불
꺼지지 않는 무진등이 하나 있다
습지놓은 말들에
하나씩 말을 전다

내 몸은
그 등불의 심지다 - '무진등' 전문
무진등은 한 개의 등불로 수많은 등
불을 켤 수 있는 등이고, 한 사람의 범
으로 백 천 사람을 교화하여도 다함이
없는 데 비유한다. 1연에서는 별을 무
진등으로 비유한다. 2연에서는 무진등
을 내면화 하고, 3연에서는 말들에 불
을 전하며 추상적인 말을 감각화 한다.
4연에서는 화자의 몸이 등불의 심지로
비유되고 있다. 이 시 전체 대의는 사람
이 바로 무진등이라는 말이다.
다만 시 '겨울 속의 산'에서는 마주
선 사람의 업보를 보여 준다는 '업경
대'를 핵심 시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
러한 업경대가 화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청동 겨울의 뒷면'에서
도 '업경대를 들여다보듯 천천히 등경
을 들어' '청동겨울 인의 나뭇 보고 싶

다고 한다.
'매월당'에서는 '성주산 어귀 골짜
기마다 깊숙이 꽃을 감추고 있는 화장
골 지나 꽃고개 너머/ 몸 안에 사리를
감추고 싶었던 매월당 만나러' 무량사
에 가기도 한다.
계심사 입구 계심동에
끓는 물속에 담가진 열음처럼
몸이 녹아내렸다
뜨거운 찻잔 속에서 나는
아주 녹지 않는 열음이었다
이기부처가 그려진 현등이 꿈결인 듯
연행성처럼 빛을 내뿜고 있는
밤의 정수사
내가 열음의 몸을 가졌음을
뜨거운 물속에서야 알 수 있게 되었다
꽃잎들이 나비무 비라무를 추며
허공을 내려오는 봄밤.

성불 조각원 www.sunbul.co.kr
귀의 삼보 하시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하지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 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패,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홍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